

터키로 가는 길

터키로 여행을 하게 된 것은 하나의 작은 실수에서 출발한다. 사실 터키여행을 계획하기 전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었고, 호주로 갈 생각이었다. 취업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워킹 비자를 신청했다. 신청하고 나서 평균 두 달 정도면 승인이 나게 되는데, 3개월이 지나서도 비자 승인이 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해서 신청이 거부되었던 것이었다.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돈은 모였는데, 정작 갈 수가 없었던 나는 막연하게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우연히 예전에 쓴 일기장에서 '터키가 EU 국가가 되기 전에 여행을 가자'라고 썼던 글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터키를 가기로 했다. 홀로 여행하는 것이 두려워서 인터넷으로 동행도 구하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터키를 중심으로 그리스와 터키, 이집트까지 한 달 동안 3개국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여행계획을 세웠다.

10월의 날씨 좋은 날에 일정이 시작되어 공항으로 출발했지만, 그리스 아테네 공항 파업으로 인해 그리스로 가는 비행기가 모두 결항되어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비행기는 2일 뒤로 미뤄지고, 예약했었던 숙소는 취소가 되지 않아 그대로 금액이 청구되었다. 한 달 일정에 처음부터 변화가 생겼다. 다시 2일 뒤에 여행을 재개하는데 불안했지만 설레는 마음을 갖고 비행기를 탔다. 부푼 가슴을 안고 경유지에서 10시간 대기 후 거의 22시간 만에 겨우 아테네에 도착하였다. 서울에서는 약간 찬 바람 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는데, 이곳 아테네는 거의 같은 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텁지근했다.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인 듯했다. 아테네에서 산토리니를 거쳐, 코스섬, 보드룸을 통해 터키로 갔다.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코스섬





그리스 산토리니섬

여행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강이 흐르듯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마치 배 위에서 거센 파도를 만난 듯 이리저리 고비가 많았다. 여행 중에 좋았던 점은 사람들을 만나 서로 다른 그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고, 각자의 여행담을 나누며 디테일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유연성 있는 여행 일정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행 중 힘들었던 점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맞지 않는 의견, 그들의 행동이 나 말에 상처를 입었던 것이었다.

같이 여행을 준비한 동행이 있었지만 결국 여행을 진행하면서 내가 준비했던 여정과 동행자가 준비했던 여정이 달랐기 때문에 동행자와 헤어져서 나 홀로 여행을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그래서였을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누군가 동행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다. 그래서 각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좋은 시간을 가지며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동행들과 헤어졌기

때문에 나는 기존 루트였던 이집트를 가지 않기로 하고 터키라는 나라를 더 둘러보기로 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며, 유럽 쪽으로 약간의 영토가 걸쳐져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영토는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나라들을 국경에 두고 있다. 터키는 전체적으로 유물, 유산 등 볼거리가 너무



페티에에서 패러글라이딩 중 찍은 블루라군



이스탄불 술탄아흐멧



그리스 산토리니섬 아이들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



루멜리 히사르의 성벽



터키 현지인 집에 초대되었던 저녁식사



나 많은데, 너무 많은 탓에 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부서진 유적지도 많고, 보존이 덜 된 곳도 많았다. 여행을 다니는 내내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 안타까울 뿐이었다. 이곳은 옛 로마 시절의 기독교 교회들이 터키 전역에 퍼져있어, 그로 인해 건축양식과 미술은 가톨릭 양식을 많이 엿볼 수 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터키는 이슬람 국가여서 가톨릭 유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예전에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도 철거할 위기에 놓였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아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된다. 카톨릭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는 터키. 너무나 매력적인 나라이름은 틀림없다.

터키 여행을 하면서, 내가 가장 좋았던 도시, 가장 인상 깊었던 도시는 단연, 이스탄불이었다. 10개의 도시를 둘러보고 여행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탄불이 가장 좋았던 까닭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의 야경이 너무나 멋지고, 관광지를 여러 차례 둘러다녀 봐도, 계속해서 볼거리가 넘쳐난다는 점이 매력이었다. 이스탄불에서 2주 동안 있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 도시에서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대표적으로 내가 좋았던 곳은, 굴하네 공원과 루멜리 히사르라는 성벽유적지이다.

굴하네 공원은 구시가지 거리에서 아야소피아를 등지고 탁심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마주할 수 있는데,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몇백 년 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공원을 마주할 수 있다. 이곳은 실 거리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해안가가 보이는 산책로여서 더 인상적이다. 그 길을 따라 내려오면, 탁심으로





이스탄불 거리

이어진 갈라타 다리가 있다. 갈라타 다리 근처의 고등어 케밥이 유명한데, 우리나라 돈으로 3,500원 정도의 가격이다. 바게트같이 구운 빵 안에 고등어 반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고, 야채를 올려서 주는데, 이 맛이 정말 일품이다. 레몬소스를 뿌리고, 절인 야채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 한 번도 먹어 보지 못했던 음식이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

갈라타 다리를 건너면 루멜리 히사르로 가는 버스정류장이 나온다.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보스포러스 해협 옆에 있는 성벽인 루멜리 히사르가 나온다. 그곳은 바다를 아우르고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다. 가파른 성벽을 올라가면 해협이 한눈에 담긴다. 성벽이 생각보다 길었고, 이곳에서 보는 경치가 너무나 낭만적이고, 아름다워서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아직도 내 눈앞에 생생한 모습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 한동안 터키 앞일을 하며 지냈었는데, 나중에 보니 루멜리 히사르에 성벽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금은 성벽을 오를 수 없다고 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다친 사람도, 그 풍경을 다시 올라서서 보지 못하는 것도 모두 아쉬움이 들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을 여행을 하고 나니, 세상이 정말 달라 보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으로 본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고, 내가 살아왔던 곳이 아닌 다른 세상의 새로운 모습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우리의 문화와 다른 점도, 또 같은 점도 있다는 것을 비로소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의 경험과 보냈던 시간, 소중한 추억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기회와도 같으니까. 여행 중 힘든 순간도 있었고 즐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나는 이번 터키여행을 하지 않았으면 한국에서 여행의 참맛을 느끼지 못한 채 매번 패키지 여행길에 올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결정했고 이 결정을 너무나 축복으로 여긴다.

나는 지금도 여행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을 때면 그 시절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연락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속에는 아직 터키에서 함께 했었던 그 날들이 있기에, 나의 터키에 대한 추억은 아직도 살아 있다. 여행은 지나왔지만, 언제든지 그때 그 추억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때의 추억을 되뇌고 있다. 동서양이 공존하는 터키로의 여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나라가 분명할 테니깐 말이다. 📷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